

## 圖書館 資料購入費 이대로 좋은가?

—國立大學圖書館을 中心으로—

崔 貞 泰  
全北大圖書館學科

### 1. 國力과 圖書館

우리나라의 實力은 이제 세계올림픽경기를 치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國防面에서도 우리는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를 가지고 우리의 하늘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음을 스스로가 실감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國力은 국제규모의 운동장 뿐만 아니라 동양최대의 國會議事堂과 文化會館을 가진지가 오래이고 머지않아 우리는 초대형 國立博物館을 首都 한 북관에 자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어서 民族의 이름으로 獨立記念館을 세우게 되어 自主獨立國家의 체면을 유감없이 발휘할 날이 곧 到來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외같이 우리는 의형적인 建築物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면까지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陸地의 8백분의 1밖에 안되는 조그마한 國土에서 세계 人口의 8십분의 1밖에 안되는 사람이 자원이라고는 사람밖에 없는 나라가 中東의 사막에서 아프리카의 輿地에서 오직 땀과 頭腦로서 세계속의 한국을 빛내고 있는 것이다.

그럼 韓國의 이러한 躍進을 가능하게한 要因은 어디에 있을까?

거기에는 社會的 經濟的 要因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지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두드러진 요인은 교육의 投資效果가 이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韓國의 近代化를 주도한 舊韓末의 선구자들은 끊임없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學校를 개설하기도 하고 圖書館을 만들어서 국민을 깨우치게 했던 것이다.

이러한 脈絡이 오늘에 까지 이어져 새 時代를 맞이한 政府의 意志는 「教育立國」과 「文化暢達」이라는 國政의 指標를 세우고 大學을 育成하고 學校를 增設하며, 스포츠시설과 博物館과 文化藝術館을 세워 이를 더욱 다져나가고 있다. 그러나 교육입국과 문화의 창달은 이러한 形成의 확충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나라의 체면을 세우고 국력을 과시하며 나아가 국민의 意識水準을 높이고 自尊心을 키우는 데는 어떠한 國民共有의 圖書館活性化가 다른 무엇보다 더 急先務가 아닐까 생각된다.

政府發表에 의하면 來年度 政府豫算은 10조5천억원이라고 한다. 여기서 歲出面에서 본 教育費의 支出은 전체예산의 20%인 1조9천억원으로서 例年の 16~17%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하고 있다. 이는 先進國, 이를테면 美國(17.7%), 캐나다(18.5%) 英國(14.3%)보다 약간 상회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 政府도 教育의 重要性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일단 評價할 수 있다. 그러나 教育의 重要性을 알면서 어떠한 國民의 平生教育을 맡은 圖書館에 대한 投資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再考해 볼 만 하다고 생각된다.

스포츠시설과 공연장등을 東洋第一로 내세우면서 唯獨 圖書館만은 세계 下位圈에 묶어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면 이에 직접 관련되는 圖書館豫算, 특히 圖書館資料購入費가 果然 우리나라에서 어느정도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 2. 圖書館과 情報資料

高度의 産業社會에 접어든 오늘날에는 資源과 勞動力에서 얻어지는 經濟的生産力이 國力の 評價要素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하여 제반 산업이 발달한 나라는 先進國이라 부르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低開發國이라고 지칭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고려하여야 할 것은 國力은 그 경제적인 생산력을 결정하는 요소가 자원뿐 만 아니라 知識과 技術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하는 教育力量을 무시하고는 생각할 수 없다.

한例로, 말레이아, 브라질 등이 비교적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開發途上國으로 머무르고 있는데 反하여 자원이 빈약한 英國, 日本등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그들은 현대적인 教育體制아래서 국민 모두가 지식을 습득하고 진보된 과학지식과 세련된 기술을 생산에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情報資料이고 그 情報資料의 貯水池가 圖書館이라고 할 때 도서관이야말로 頭腦生産의 寶庫라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나라의 國力과 發展의 尺度는 그 나라 圖書館의 數와 藏書量을 가지고論하기도 한다. 그것은 그만큼 도서관이 국가발전에 核心的인 구실을 담당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1981년판 「한국도서관통계」를 보면 한국도서관의 수량은 공공도서관이 120개, 대

학도서관이 222개, 학교도서관이 3,184개, 특수도서관이 191개 그리고 국립, 국회 도서관 모두 합하면 3,719개나 된다. 한편 같은해 版인 「유네스코통계년감」을 가지고 외국의 몇몇 나라와 견주어 보면 미국의 도서관은 모두 87,129개로 우리나라의 23배이고, 캐나다(9,701개)는 2.6배, 일본(45,186개)은 12배로써 선진국의 면모를 보이고 있으나 개발도상국인 브라질(4,518개), 말레이아(166개), 태국(852개) 등은 우리보다 낮은 곳도 있고 못한 곳도 상당히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도서관에 대한 物量的 숫자가 아니라 이들이 지니고 있는 規模나 質 그리고 그 內容이 더욱 문제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다.

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한다면, 그 圖書館은 어떠한 도서관이며, 어떠한 良質의 圖書가 얼마나 確保되어 있으며, 어떤 종류의 藏書가 얼마만큼 保有하고 있으며 그리고 어느정도의 豫算을 가지고 어느만큼 資料를 구입할 수 있는 能力을 가지고 있는냐 하는 것이다. 아무리 시설이 훌륭하고 유능한 직원이 있더라도 여기에 투입되는 資料費가 빈약하면 도서관의 價値는 자연히 상실하고 마는 것이다.

公共圖書館을 중심으로 거기에 투입되는 자료구입비 비율에 대한 調查報告書가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인구 1인당 자료비가 4원20전인데 대하여 일본은 우리의 20배나 넘는 89원이며, 美國의 한州인 워싱턴은 우리도서관의 1백배가 훨씬 넘는 470원 꼴로 책정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국민 총생산고를 보아도 그들과의 백여배의 차이가 있지 않으며 정부 예산지출율에 의해서도 그만큼의 격차가 있다는 것은 발견할 수 없다.

한편 年間 出版發行種數의 統計를 중심으로 하여 국별현황을 보면 우리도 이젠 선진국에 進入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느낄때가 있다. 즉 1979년을 기준으로 한국이 16,000종인데 말레이아는 2,000종이고 태국은 3,400종, 호주는 8,400종, 브라질이 18,000종이며, 일본은 44,000종, 캐나다는 22,000종, 미국은 85,000종이다.

이와같이 우리나라는 출판물의 발행량에 관해서는 그렇게 큰 격차가 있지 않는데도 어떠한 緣由에서인지 이 나라의 도서관 장서는 왜 그렇게 빈약한지 측정키 어렵다.

실례로 전국, 120개의 公共圖書館의 全藏書를 모두 합하여 서울의 명문 2개도서관 장서수 보다 적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여기에 책정되는 예산면에서도 전혀 고려되지 않은 곳이 상당수가 존재하고 있으며 심지어 120개중 전문적 圖書가 단 1명도 없는 곳이 46개소에 달한다는 報告가 이미 發表된 바 있었다.

뿐만 아니다 學校圖書館 역시 초·중·고등학교를 위한 악세사리적인 기구일 뿐 예산면이나 장서, 직원 등에서 위의 상황과 하등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 속에서 大學圖書館, 특히 國立大學은 그나마 規模나 조직, 豫算面에서 비교적 體制가 갖추어 있다고 보아 이를 대상으로 藏書數와 法定基準, 保有率, 그리고 학술잡지를 포함한 圖書購入費에 대하여 豫算狀況을 알아보고 이를 다시 全體 大學에 대한 資料費投資比率등을 조사 분석하여 圖書館과 藏書發展에 기여토록 하는 돌파구를 찾아야겠다.

### 3. 藏書量과 資料費

현재 우리나라 4년제 國立大學은 10개 종합대학과 10개의 단과대학이 있다. 여기의 總藏書數를 모두 합한다면 246만권이고 한 대학당씩 평균으로 나누면 약 12만3천권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 된다. <표-1>

이를 다시 종합대학과 단과대학으로 구분해서 보면 평균쳐서 종합대학은 22만권이고 단과대학은 2만권에 불과하다.

우리가 단순히 산술적 숫자로 볼때는 종합대학의 장서수가 그렇게 적지않게도 볼 수도 있으나 장서 1백만권을 소장한 서울의 한 도서관을 빼고서 생각한다면 10여만권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더욱이 地方은 2만권도 못되는 단과대학이 4곳이나 존재하고 있다.

한편, 20개의 도서관 장서량을 모두 합친다해도 1981년도 기준 미국 하바드대학(960만권)의 4분의 1정도이며 예일대학(690만권)의 3분의 1이고,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490만권)의 2분의 1에 불과하다.

이와같이 장서량의 부족은 외국의 예와 비교할 것도 없이 1967년에 文教部가 만든 「大學設置基準令」의 권장사항에 35%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다면 그동안 政府가 그리고 大學當局이 도서관에 投資한 資料費가 얼마나 인색하였는가를 쉽사리 結論지을 수 있다.

이를 實證한 例로서, 1981. 3. 31 통계를 기준 圖書館資料費를 살펴 보면 20개 대학을 모두 합쳐도 1년간 예산이 14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 <표-1>

이 예산을 다시 몇몇 미국의 대학에 견주어 보면 하바드대학(순수한 도서구입비 \$3,262,000≒약 23억원)의 60%이며, 예일대학(\$2,434,000≒17억원), 버클리대학(\$2,255,000≒16억원)등과 상호 비교해 볼 수 있다. 지방구립대학의 평균 資料費

<표-1>

국립대학 도서관 장서 및 자료비 예산현황

1980. 4. 1~1981. 3. 31 기준

기 관 명		장 서			자 료 비 예 산		
		보유수(권)	법정 기준	보유율(%)	도서구입비(천원)	잡지구입비(천원)	계(천원)
총 합 대 학 교	강 원 대	71,396	481,200	14.8	31,322	51,055	82,377
	경 북 대	253,410	885,000	28.6	58,500	48,000	106,500
	경 상 대	51,208	295,000	17.3	70,366	3,650	74,016
	부 산 대	234,984	635,000	37.0	293	85,000	85,293
	서 울 대	1,096,078	1,209,520	90.6	148,208	219,040	367,248
	전 남 대	150,799	761,870	19.7	68,250	50,000	118,250
	전 북 대	135,485	735,700	18.4	61,439	65,000	126,439
	계 주 대	60,062	231,600	25.9	42,996	15,000	57,996
	충 남 대	111,468	510,820	21.8	62,363	40,000	102,363
	충 북 대	78,546	483,600	16.1	51,985	30,000	81,985
	소 계	2,243,436	6,233,230	—	595,772	606,745	1,202,517
	평 균	224,343	623,329	35.9	59,577	60,674	120,251
	단 과 대 학 교	강 령 대	16,153	60,000	26.9	18,438	1,962
공 주 사 대		33,504	108,600	30.8	30,000	4,000	34,000
군 산 대		20,277	55,000	36.8	21,740	4,070	25,810
마 산 대		16,222	68,000	23.8	17,000	8,000	25,000
목 포 대		26,099	91,360	28.5	22,942	3,977	26,919
수 산 대		40,717	102,730	39.6	23,930	5,112	29,042
순 천 대		7,100	50,000	14.2	4,400	300	4,700
안 동 대		20,352	60,000	33.9	24,151	3,263	27,414
체 육 대		2,941	11,700	25.0	10,000	1,230	11,230
해 양 대		32,769	57,900	56.5	10,000	8,700	18,700
소 계		216,134	665,290	—	182,601	40,614	223,215
평 균		21,613	61,529	35.1	18,260	4,061	22,321
합 계		2,459,570	6,898,580	—	778,373	647,359	1,425,732
평 균	122,978	344,929	35.6	38,918	32,368	71,286	

자료 : 한국도서관통계 1981(다만 공주사대, 체육대의 일부자료와 법정기준은 별도자료를 참조한 것임)

는 2,200만원이고 심지어 1년간 예산이 470만원밖에 안되는 대학도 존재한다.

이 예산을 가지고 책을 살 경우, Chemical Abstract 1종을 구독할 수 있는 금액이고, 외국의 저명 학술잡지 십여종밖에 확보할 수 없으며 만일 단행본을 구입할 때는 국내로서는 1천원 내외이고, 외국의 신간도서는 2백여권 밖에 살 수 없는 예산이다.

그러면 이와같이 빈약한 자료비는 정말 국가의 財政이 부족해서인가? 아니면 政府當局의 政策의 貧困이어서인가?

외국에서는 주로 대학 전체예산의 4.8%~3.7%를 도서관 예산으로 확보해 두고 있으며 여기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자료확보에 임하고 있다.

그런데 非公開된 자료에서 뽑은 한국의 현황을 보면 <표-2> 대학전체 예산에서 도서관 자료비는 0.8%에 불과하고 대학 전체예산에서 施設費를 제외한 大學運營費에 대한 資料費는 종합대학이 1.1%이고, 단과대학이 1.2%에 그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文部省이 지적하는 도서관비는 예산중에서 도서관유지비 및 운영비로 42%를 배당하고 나머지 57%를 자료구입비로 활용할 것을 의무화시키고 있다. 그런데도 日本大學圖書館 特別委員會가 조사한 75개의 國立大學의 앙케이트 집계에 의하면 전체 도서관 예산에서 도서 및 자료구입비로 평균 64%를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36%로 비품 및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資料費에 대한 확보율을 명시한 어떤 條項을 찾아볼 수 없으며 1%도 못미치는 예산으로 자료비를 충당해 가고 있는 것이다.

합리적이고 조직화된 국립대학도서관의 현상이 이틀진 데 기타 소규모 사립대학 도서관이나 지방의 군소도서관의 실정은 가히 짐작으로 가능할 수 있으며 이와같이 <표-2> 한국 국립대학예산 대 도서관자료비 비율

1981. 3. 31 현재

기관명*	대학전체 예산에 대한 도서관 자료비비율	대학운영비에 대한 도서관 자료비비율**
A — 가	0.8 %	1.4 %
나	0.2	0.7
다	0.5	1.8
라	0.6	0.8
마	1.1	1.4
바	0.7	1.1
사	0.9	1.4
아	0.6	1.0
자	0.6	1.3
평	0.8	1.1
B — 가	1.0 %	2.4 %
나	0.9	1.5
다	0.5	2.3
라	0.9	2.3
마	0.9	1.2
바	0.6	0.9
사	1.2	2.5
아	1.0	1.8
자	0.6	0.8
차	0.5	0.8
평	0.8	1.5
전체평균	0.8	1.2

\* 기관명중에서 A는 종합대학이며 B는 단과대학임

\*\* 대학운영비는 시설비를 제외한 교비임

성의없이 배푸는 도서관정책의 빈곤으로서는 정보의 원활한 수급과 그 이용은 매우 어렵다고 보겠다.

#### 4. 擴充해야할 資料費

우리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軍事的으로, 經濟的으로 남의 도움을 받는 受援國家에서 情報가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그저 앉아서 얻어 먹기만 하여도 살 수 있었다. 그러나 情報化時代에 들어온 오늘에 와서는 은 세계와 매결을 피할 수 없으며,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體系化된 정보가 필요하며 또한 이러한 것이 없이는 하루라도 지탱

할 수 없겠끔 되어있다.

여기서 도서관이라는 情報의 貯水池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요청되게 되고 이를 현대적 시설로 잘 만들어 관리하며 필요한 정보를 모두 수집하여 필요시 마다 콕크를 조절하여 配分과 利用에 적극 활용하여 인력과 두뇌개발에 획기적인 조치를 앞둔다면 장차 우리는 살길이 없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와같이 살길을 찾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과감한 투자가 요청된다. 돌이켜 보아 우리는 이제까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였지 장기적인 안목에는 매우 인색하였음을 숨길 수 없다. 우선 앞으로 우리가 지향할 것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도서관을 가일층 확충하여야 함은 물론 圖書館만을 신축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圖書館을 계속 신축되되 과감한 예산투자가 증폭되어 정보의 저수지에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모든 圖書館은 義務的으로 資料費를 예산항목에 策定하여야 한다.

둘째, 大學圖書館의 경우 도서관은 대학 전체예산에서 적어도 30% 이상을 확보 되도록 한다.

셋째, 이상에서 책정된 예산에서 資料費에 해당하는 비율은 적어도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끝으로, 도서비가 만족스럽게 충족되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도서비를 유효 적절히 관리할 전문적으로 훈련된 收書擔當司書(acquisition librarian)가 확보되어 합리적이며 效率的인 수서체계가 확립될 때 비로소 도서관의 活性化는 물론 국가의 發展도 더욱 加速化될 것이 틀림없다.

● 未納金を 早速히 納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本協會는 財政自立이 마련되지 못한 채 다만 여러 會員들이 負擔하는 會費와 出版物代金으로 살림을 꾸려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러 분들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나 協會의 어려움을 깊이 理解하시어 未納된 團體會費와 個人會費 그리고 出版物代金を 早速히 納入하여 주시면 대단히 感謝하겠습니다.